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오 병 세
(고신대 교수)

필자는 여성문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살펴 보고자 한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므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찌 여자들 곧 일곱귀신이 나간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즉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주제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로는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 교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여성에 대하여 살피는데, 여기서는 고대(古代)의 여성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피므로 시작해 보자.

고대 헬라에서의 여성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헬라여성은 고대 다른 이방사회의 여성들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장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시대에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강해서 여성은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에 있었다. 습관과 법률에 있어서 남자 혹은 남편의 권위와 통제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런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여성은 본래 열등한 존재다”고 했다.

또 헬라의 한 부분이었던 스파르타에서의 이혼관계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형식이나 법적절차도 없이 남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었다. 덧붙이면 일방적으로, 쌍무계약없이 남자에 의하여 결혼이 폐기 될 수 있는 사회였으며 그런 상태하의 여성의 위치였었다.

고대 로마시대를 살펴보면 이 제국의 여성들은 헬라시대보다 다소 나은 지위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부인(아내)은 남편의 완전한 주관하에 있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었다. 이시대 역시 남존여비사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주전 215년에 오퍼우스가 제정한 법률을 보면 물론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이런 귀절이 있다. “여성은 누구나 금을 1/2온스 이상은 소유할 수 없으며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고 로마시나 로마 시민이 점령한 도시 혹은 그러한 지역에서 1마일 이내에 있는 곳에는 종교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마차를 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여성에 대한 강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헬라나 로마는 남성우위의 위치가 적극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대교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자. 유대교 역시 남존여비의 사상은 여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회당에서의 기도 가운데 찾아 볼 수 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여성을 한 계급 낮게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들은 그들의 기도중에 ‘어떻게 하다가 여성이 됨을 감사합니다’는 식이었음을 볼 수 있다. 유대교에서는 헬라나 로마보다는 나았으나 역시 남녀의 분리가 엄격하였고 또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으나 일부다처제가 그대로 행해지기도 했었으며 로마와 같이 이혼에 대한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고 여자는 족보에 들지 못하는 신분에 있었다. 한편으론 여성이 예배의 공, 사적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고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헬라와 로마보다는 나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존여비가 남아 있었던 것을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산모의 정결기간이 있었으나 여자를 낳으면 80일동안 산모가 정결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여자는 밖에서 보다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사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있는 한국은 어떤가? 사실은 신라, 고구려, 고려 시대는 여성의 위치가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유교가 지배철학이 되었던 이조시대 부터 불교에 대한 탄압과 아울러 여성에 대한 제한이 많았다. 15세기 이조 세조때에 편찬된 경국대전을 보면 특히 여성의 종속화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중국보다 나은 형편이었으나 여러가지로 여성에 대한 제약이 많아졌다. 그 잔재를 오늘날의 부부호칭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이며, 계급, 촌수가 많이 발달된 점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아내에 관한 용어를 보면 아내가 밖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고 가정(안)에서 일할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에 보면 여성은 남편의 보호하에 있고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옛날 이조시대부터 여성들에게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집에서 일하는 그것이 제일이고 남자처럼 과거에 응시한 적이 없었다. 여성은 공무원도 될 수 없는 형편속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특수직, 예를들면 왕궁에 봉사하는 벼슬을 갖고있

던 여성, 왕의 시종드는 자, 무당, 기생들이 있었으나 그외에는 일반적인 업을 가지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여성을 위한 공적 교육기관도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고대, 대표적으로 헬라, 로마, 유대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를 대략 진술해 보았다. 그의 동양, 일본과 중국역시 남존여비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전환기역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사회제도에 변혁을 일으키신 점에 대해 특히 교회에서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자는 남자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도 동일하며, 인권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여성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루어졌고 여성에 대한 보호도 바로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여성의 신앙을 귀하게보시고 인정도 하셨다. 혈루증걸린 여인과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스루보니게 여인의 신앙을 매우 귀하게 보셨던 것이다. 또 남자만이 교육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여인에게 홀로 신앙교육을 행하셨으며 그뿐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귀하게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바치는 것을 귀하게 보셨으며 18년동안 귀신들린 여인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다. 예수님 주위에 봉사자들도 많았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사도들이 3년이나 예수를 가까이에서 교훈 받았지만 이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가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여성이었고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위로하고 슬퍼하였던 자도 남자가 아닌 여자였음을 우리는 잘안다. 그러고 볼때 여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안에서 바른 위치를 찾게되었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권리가 같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자

이므로 남자만 구원을 받고 여자는 구원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성의 위치가 바르게 회복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기독교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2. 교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이어서 두번째로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루살렘교회와 사도적교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교회에서의 역할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있으며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자.

먼저 예루살렘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살펴자.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하르낙은 이렇게 말했다. “신약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의 기독교전파에서, 그리고 기독교지역사회 전체를 통해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의 전파, 복음전파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지역사회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사실 그렇다. 교회설립초에 남자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여성들을 초청하는 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지는 않았다. 주님이 승천하시후 예루살렘 다락방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모인 무리 120명 가운데 여성들도 동참되었다. 그들도 함께 기도했다. 교회초창기부터 기도 멤버의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도 했다는 것이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후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즉 여성도 포함되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또 예루살렘교회의 핍박의 대상이 남자만은 아니었다. 여기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행8:3)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교회의 주요집회소중 하나가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 이집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과 사도들이 종종 모이던 곳이라고 알려지기도한 집으로(행12장 12절이하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이 집으로 간 점을 참고) 이는 남녀성도가 처음부터 같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는 사도적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살펴자.

이상에서 본 예루살렘교회뿐 아니라 사도적교회가 그런 역할(방법)로 설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때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남자만은 아니었다. 남자뿐아니라 여자도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에 말하고있다.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첫회심자, 첫열매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는데 루디아, 바로 빌립보의 자주장사였다. 그뿐아니라 빌립보에서 먼저 믿었던 성도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성도가 여성도들이었다. 아마도 이들이 집을 내주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않았나 짐작된다.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신자들가운데 “귀부인”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있다. 이 귀부인이 아마 그지역의 고급관리나 공무원의 부인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역할 또한 대단하였다. 또 신약성경에 가장많이 등장하는 여성가운데 브리스가라는 인물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여섯번 그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 가운데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4번이나 된다. 이는 여성도 브리스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 부부가 로마의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지만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아블로를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였던 것이다.

이를 볼 때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을 여성도들이 담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흔히 학자들가운데 바울은 독신자여서 여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않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성도들의 이름 스물여섯중에 여덟이 여성도들의 이름이다.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 ‘바울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다’는 등으로 바울이 주를 붙여 놓았다. 이를 볼 때 아직 바울이 가보지 못한 로마의 개척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가운데 1/3정도가 여성도들이었음을 찾아 볼 수 있게한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볼 때도 초대교회의 회집을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사랑방에 모였듯이 여성도들의 방을 빌려 가정교회로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유럽과 로마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을 원(圓)으로 볼 수있다. 이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포함되어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영적특권을 소유한, 즉 구원을 받은 남녀가 동등하게 여기 가담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성례, 즉 할례를 남자에게만 행했지만 신약의 세례는 남자에게만 행한 것이아니고 남녀에게 다 행해진 것이다. 학습도, 입교도 그렇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안에서의 역할문제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 같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질서를 제정하신 법칙이 있다. 질서유지와 고린도교회를 위시한 자유를 남용, 방종을 방지키위해서 여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히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공적모임에 있어서 순종하여야 할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여성도의 역할로 지정된 것이다. 여성의 미덕과 힘은 어떤면으로 순종이 미덕이요, 순종하는 가운데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약하더라도 미소와 부드러운 것과 순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성애속의 감화가 가정에서 이루어 지듯이 순종하는 가운데 재안하는 교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특히 오늘날 20세기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말은 인기없는 말이다. 영국에서는 결혼서약가운데 신부가 신랑에게 ‘순종’ 한다는 말을 삭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라고 명하신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남편에게는 사랑이 결핍될 수 있으므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순복하라, 즉 교회가 그 머리되

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하라고 한다. 이는 열등의식이나 권리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 교회안에서도 특히 신약의 교훈이 복종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에 특히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아도 여자는 써야한다는 것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으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지배하는 위치를 차지하지 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지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하나님을 남성들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고, 곧 교회 생활을 주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설교와 지배하고 통치하며 처리하는 것은 여성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강론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교회는 여성도들의 역할이 실로 큰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머니도 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배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수리아 지방에서 3세기 초에 나온 '디다스칼리아'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여집사와 과부, 즉 여성도들은 두반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도하는 자들과 간호하는 자들을 나누어 교회일을 봉사하라는 뜻이었다. 이것이 그때 교회의 형편이었다. 여성도들의 할 일, 교회의 살림밑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고 심방, 구제, 간호, 병문안 등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 때 부터 된 것이다. 특히 요즈음 루터교회에서는 여교역자를 '디크니스' (여집사) 라고 하는데 그들은 설교가 주임무가 아니라 기도하고 심방하는 것이 그들의 주임무이다. 오늘날 각 교회에 여전도회가 있고 여집사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할 일은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가장 주요한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생각할 때 구원을 받을 대상, 영혼의 위치, 하늘백성, 그리고 교회라는 점에서 남녀의 위치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 역할, 기능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것이다. 남녀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할 일이 교육과 전도, 선교, 자비로운 일, 즉 구제와 봉사인데 필자는 이런 점에 비추어 현실적인 다섯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평신도에게 합당한 성경공부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성경과 여성도들의 활동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교육 특히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자녀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복음화와 지역교회주변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기도와 물질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다른단체, 특히 여성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협력이 부족하다. 개인의 기술은 특별나지만 협력하는데는 약점이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 나라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재능이 있으면서도 협력이 잘 안되는데 이런 풍토가 교회안에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교회, 개척교회도 바쁘지만 기도하며 인물을 발굴하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적인 성장과 내일을 바라보는 역할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